

출동! 평강 공주의 온달 변신 프로젝트



시 도움 받아 이용노 씀



작가프로필

화목한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랑하는 가족을 품에 안은 따스한 가장의 마음으로 동화책을 짓는 작가입니다. 오랜 세월 일구어온 삶의 깊은 지혜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써 내려갑니다. 손주들의 천사 같은 웃음소리에서 반짝이는 영감을 얻고, 배우자와 자녀의 든든한 응원을 원동력 삼아 마음속 따듯한 풍경들을 그려냅니다. 가정을 성실히 책임져온 가장의 깊은 사랑을 담아, 지친 이들의 마음에 포근한 안식처 같은 위로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2026년 5월부터 기획, 7월완성

이영호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래동화에 'AI 시대'의 상상력을 더한 특별한 패러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는 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 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을 그리고,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를 새롭게 엮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다정하게 손잡고 디지털 세상을 달리는 등 상상력 가득한 패러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듯한 햇살이 되길 바랍니다. 정성껏 빚어낸 'AI 시대 패러디 전래동화'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



2026년 5월부터 기획, 같은 해 7월 완성

출동! 평강 공주의 온달 변신 프로젝트





[1장]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달리는 고구려 스마트 시티.

평강 공주는 방 안에서 최신 로봇 '몽이'를 조립하느라 밤을 새웠어요.

공주는 신나서 왕에게 로봇을 내밀었어요.

"아바마마! 시방 이것 좀 보쇼. 제가 만든 AI 로봇인디, 지가 알아서 쓰레기도 줍고 춤도 요로코롬 맛나게 춘다니까요!"

하지만 엄격한 왕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2장]

"아유! 공주가 왜 위험한 로봇을 만드느냐! 고장 나서 방바닥이 쿵 부서지면 어쩌려고 그래!"

왕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평강 공주도 입술을 앙 깨물며 씩씩하게 말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안전장치를 튼튼하게 해두었던 말이에요. 저는 멋진 AI 과학자가 될래요!"

화가 잔뜩 난 왕은 자리를 벌떡 박차고 일어났어요.



[3장]

"네 이년, 자꾸 고집 피우면 저기 숲속에 사는 바보 온달한테 시방 당장 시집을 보내버릴 줄 알아라!"

왕이 문을 쿵 닫고 나가자, 평강 공주는 눈을 반짝였어요.

'바보 온달이라고? 진짜 바보인지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어!'

공주는 배낭을 메고 슬그머니 궁전을 빠져나갔어요.



[4장]

시냇물이 흐르는 깊은 숲속, 평강 공주는 소문 속 온달을 발견했어요.

온달은 고장 난 드론을 손에 쥐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지요.

공주는 나무 뒤에 숨어 온달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때 온달이 드론을 떨어뜨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5장]

공주가 다가가 말을 건넸어요.

"아따, 거시기하네! 내가 대뜸 도와줄게!"

공주가 태블릿 PC 화면을 몇 번 누르자, 드론의 날개가 위잉 돌며 하늘로 힘차게 날아올랐어요.

온달은 입을 꾹 벌린 채 눈을 깜빡거렸어요.

"오메! 이게 대체 무엇이여?! 겁나게 신기하구마잉!"



[6장]

"온달아, 넌 손재주가 좋으니까 멋진 로봇을 만들 수 있어. 나랑 같이 공부해 볼래?"

공주의 다정한 말에 온달의 얼굴이 발갛게 물들었어요.

그날부터 온달은 졸음을 참아가며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우, 공부하기 참 힘드네……." 하면서도 온달의 눈은 번쩍번쩍 빛났답니다.



[7장]

어느덧 고구려 스마트 시티에 최고의 발명가를 뽑는 'AI 대항전' 날이 밝았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온달은 무대 위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어요.

온달이 공주와 함께 땀 흘려 만든 '친환경 드론 시스템'을 보여주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때, 검은 옷을 입은 해커 군단이 뒤에서 몰래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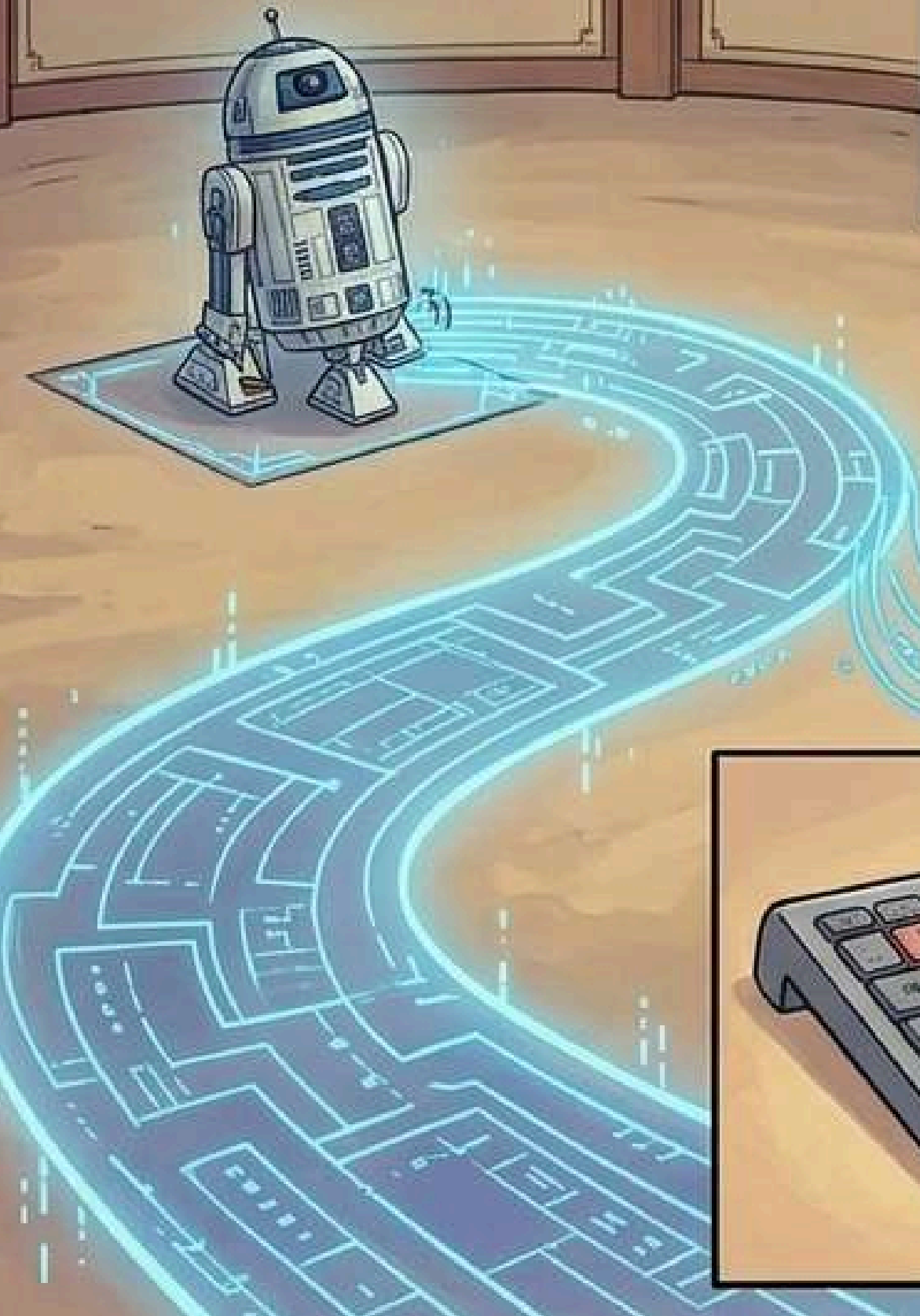


[8장]

해커들이 심은 악성 코드 때문에 드론들이 갑자기 핑글핑글 돌며 도심으로 돌진했어요.

깜짝 놀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었어요.

열심히 준비한 드론들이 엉망이 되자, 온달은 그만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9장]

"온달아, 맥없이 서 있지 마! 우리가 연습했던 '해결사 AI'는 네 손으로 움직이는 거야!"

객석에서 평강 공주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외쳤어요.

공주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온달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온달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누르며 오작동하는 원인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와아아!

[10장]

온달의 손끝에서 시작된 치료 프로그램이 드론의 악성 코드를 차단했어요.

도심을 어지럽히던 드론들이 제자리로 돌아와 멈춰 섰지요.

"와아아!" 사람들이 기쁘게 웃으며 온달의 이름을 연호했어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왕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어요.



[11장]

"오메, 내 생각이 짧았구나! 온달이는 바보가 아니라 고구려를 구한 진짜 야무진 천재 과학자여!"

왕은 온달의 어깨를 토닥였고, 온달과 평강 공주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더 멋진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